

# ‘안방불패’...대전 찍고 잔류 굳힌다

### 광주FC, 2일 홈 대전전 “반드시 승리”

#### 키플레이어 변준수...베카·아사니 ‘다공’ 활약 주목 강등 안정권 확보, 기분 좋은 ACLL 고베 원정 기대



광주FC가 대전 하나시 티즌과의 홈 경기에서 잔류 확정을 노린다.

광주는 2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K리그1 2024 36라운드 대전과 맞대결을 펼친다.

현재 14승 2무 19패 승점 44점으로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는 지난 라운드 인천 원정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하며 잔류 확정을 뒤로 미뤘다. 그러나 전북이 제주에게 패해 12위의 최대 승점이 43점이 되며 다이렉트 강등 확률이 완전히 지웠다.

상대 대전은 파이널B 2연승을 거두며 10승 11무 14패 승점 41점으로 9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승점 3점 차로 추격을 당한 광주는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서 광주가 승리하고 10위 대구가 제주와의 맞대결에서 비기거나 패하면 광주의 잔류가 확정된다.

광주는 대전과의 통산 전적에서 11승 10무 12패로 근소한 열세에 놓

여있지만, 최근 10경기에서 4승 4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광주축구전용구장 개장이후 홈에서 대전 상대 패배가 없는 광주는 무패 기록을 이어감과 동시에 대전을 따돌리고 잔류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의 키플레이어는 변준수다. 최근 ACLL 무대에서의 좋은 활약과 함께 리그에서도 지난 2경기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한 변준수는 인천전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며 체력을 비축한 상태다.

친정팀 대전을 상대로 펼치는 이번 경기에서 강력한 제공권과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무실점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최전방에서는 부상에서 회복한 베카가 출전을 대기한다. 올 시즌 대전전에서 골을 기록한 바 있어 공격전에 날카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사니의 활약도 중요하다. 경기 중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번 경기는 이정호 감독이 지난 인천전 경고를 받으며 경고 누



광주FC 변준수가 지난달 18일 광주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24 파이널 B 34라운드 대구FC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적으로 벤치에 앉지 못한다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감독 대행으로 나설 이정규 수석코치를 중심으로 선수단이 하나로 뭉쳐 승리를 얻어내겠다는 각오다.

현재 강등권인 10위 대구와 승점 5점 차인 광주는 강등 탈출 안정권에 들기 위해서 최소 1승 이상이 필요하다.

광주 팬들은 홈경기 승리를 통해 하루빨리 리그 잔류를 확정 짓고 ACLL 돌풍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다.

주중 경기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치르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와 함께 기분 좋은 일본 고베 원정길에 오를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진다. /박희중기자

## 광주시·충청시 ‘한·중 청소년스포츠 교류’ 한마당



지난 7월 광주에서 열린 한·중 청소년 스포츠교류행사. <광주시체육회 제공>

## 충청서 하나된 스포츠 우정 나눔

광주, 3개 종목 70여명 참가

제 스포츠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국가간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7월 중국선수단 80여명이 광주를 방문해 합동훈련과 공식경기, 광주김치타운 방문 등 화합의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나누는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이뤄졌다.

전남주 광주시체육회장은 “미래의 주역인 양국 청소년들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스포츠를 통해 꿈과 우정을 키우길 바란다”며 “광주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2024 우현건설 회장배 검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



2024년 우현건설 회장배 검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한 충장베이스볼클럽 선수단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 충장베이스볼클럽 우승 행가래

충장베이스볼클럽(충장BC)이 올해 마지막 대회인 2024년 우현건설 회장배 검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우종의 미를 거뒀다.

충장BC는 지난달 28-30일 무등야구장에서 광주지역 5개팀이 리그전으로 승부를 가린 이번 대회에서 진흥중과 2승1패를 기록했지만 최소 실점에서 앞서 우승했다.

첫 경기에서 무등BC에게 3-4로 패한 충장BC는 동성중을 10-3(6회 콜드게임), 진흥중을 7-0(5회 콜드게임)으로 꺾고 2승1패를 기록했다.

3경기 최소실점에서 충장BC(7점)가 진흥중(11점)에 앞서 우승을 확정했다.

충장BC 류수길 감독은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고, 충장BC 김도윤과 조성찬은 각각 우수투수상과 타점상을 수상했다.

조성찬은 최다타점상도 수상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최다투수상은 충장BC 정지훈, 감독상 진흥중 김준연, 미기상 진흥중 정원, 기량발전상은 G스타즈BC 한연우가 각각 받았다. /박희중기자

## 류중일호 1-2일 쿠바전서 최종 엔트리 28명 가린다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C) 프리미어12에 참가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쿠바를 상대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은 1일 오후 6시30분, 2일 오후 2시에 서고척스카이돔에서 쿠바와 맞붙는다.

한국시리즈를 치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현재 대표팀에서 훈련하는 선수는 35명으로 늘었다.

류중일 감독은 투수 14명, 포수 2명, 내야수와 외야수를 합쳐 야수 12명으로 최종 엔트리를 골랐다.

쿠바와 평가전에 출전하는 35명 중 7명은 프리미어12 최종 엔트리에 승선할 수 없다.

류 감독은 “6일째 최종 엔트리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확정 시점을 조금 앞당길 수 있다”며 쿠바와 평가전이 사실상 마지막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 MLB 다저스, 양키스 꺾고 WS 8번째 우승...MVP는 프리먼



31일 미국 뉴욕 양키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뉴욕 양키스와의 5차전에서 7대6 대역전을 거두며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LA 다저스 무키 베츠와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다저스의 WS 우승은 1955년, 1959년, 1993년, 1995년, 1981년, 1988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8번째이다. 월드시리즈 사상 최초 1-4차전 연속 홈런을 치며 4홈런 12타점을 수확한 프리먼은 시리즈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AFP=연합뉴스

## 순천대, 전남체육 버팀목 자리매김

국립순천대가 도약하는 전남체육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대는 최근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소프트테니스와 양궁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남의 종합 12위 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

순천대는 소프트테니스에서 금메달 1개, 양궁에서 은메달 1개·동메달 1개 등 금·은·동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했다.

특히 소프트테니스는 개인복식에서 지난 대회에 이어 개인복식 2연패를 달성했고, 양궁은 2005년 제86회 대회

이후 19년만에 단체전 은메달을 합작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특히 순천대 운동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운동부 육성에 적지않은 걸림돌이 내재된 국립대라는 악조건을 뚫고 이뤄낸 값진 성과라 그 의미가 크다.

김문선 양궁부 지도자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단체전 은메달 등 선전을 펼친 선수들이 너무도 대견스럽다”며 “내년 대회에서는 단체전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엽 정구부 지도자는 “이번 성적은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에 대한 보



전국체전 양궁에서 19년 만에 단체전 은메달을 합작한 순천대 선수들이 김문선 지도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상으로 꼽히는 전남 대학부의 전력에 큰 힘이 아닐 수 없다”며 “전남도체육회에서도 순천대의 경기력 강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제2의 광도규 찾아라”

### KIA 유망주 장재혁·김민재, 호주 리그 캔버라 캐벌리 파견

“제2의 광도규를 찾아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호주 프로야구 리그 ABL의 캔버라 캐벌리(Canberra Cavalry)에 선수단을 파견한다.

지난해 10월 광도규, 김기훈 등 총 5명의 선수단을 보낸 KIA는 올해에도 투수 장재혁과 김민재를 캔버라 캐벌리에 파견, 젊은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심재학 KIA 타이거즈 단장은 “잠재력 있는 유망주 선수들에게 경기 출전 기회를 제공하고 기량 향상을 꾀하기 위해 이번 파견을 결정했다”며 “선수층 강화 및 선수단 육성 등 구단 전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단은 6일에 캔버라 캐벌리에 합류해 프리시즌과 ABL 전반기 경기를 치르고 복귀할 예정이다. /주홍철기자

